

기록이 만든 기적 3편

교사의 방패, 기록의 힘

Junki

2024

기록이 만든 기적 3편

교사의 방패, 기록의 힘

목차

프롤로그: 그날의 전화

9부. 학교폭력 조사, 기록이 증언하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3개월 전 기록이 말해준 것

진실은 기록 속에

10부. “체벌했다면서요?”

악몽 같은 민원

그날의 수업 기록

오해가 풀리는 순간

11부. 평가 이의제기

“왜 우리 애만 B예요?”

피드백 기록의 힘

공정함을 증명하다

12부. 인수인계의 기술

2월의 선물

1년을 5분에 담다

다음 담임에게 전하는 것

에필로그: 기록은 방패이자 유산이다

교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마지막 한 마디

기록이 만든 기적 3편

교사의 방패, 기록의 힘

Junki 지음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교사를 위한 읍시 디언 완전 가이드 시리즈

목차

- **프롤로그: 그날의 전화**
- **9부. 학교폭력 조사, 기록이 증언하다**
 - 갑자기 걸려온 전화
 - 3개월 전 기록이 말해준 것
 - 진실은 기록 속에
- **10부. “체벌했다면서요?”**
 - 악몽 같은 민원
 - 그날의 수업 기록
 - 오해가 풀리는 순간
- **11부. 평가 이의제기**
 - “왜 우리 애만 B예요?”
 - 피드백 기록의 힘
 - 공정함을 증명하다

- **12부. 인수인계의 기술**
 - 2월의 선물
 - 1년을 5분에 담다
 - 다음 담임에게 전하는 것
 - **에필로그: 기록은 방패이자 유산이다**
-

"기억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 한다. 기록만이 당신을 지켜준다."

프롤로그: 그날의 전화

교직 7년 차, 나는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

한 번은 학교폭력 조사에서 “방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한 번은 “체벌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두 번 모두, 나를 지켜준 건 기록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기록이 어떻게 교사를 보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9부. 학교폭력 조사, 기록이 증언하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9월 15일, 오후 4시. 교무실 전화가 울렸다.

“선생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귀 반 학생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학생인가요?”

“피해 학생 최유나, 가해 학생 한지민. 6월
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유나. 한지민. 둘 다 내 반 학생이었다.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
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6월? 따돌림? 내가 몰
랐던 건가?

3개월 전 기록이 말해준 것

전화를 끊고 옵시디언을 열었다. 검색창에
‘최유나 한지민’.

기록이 쓰아져 나왔다.

6월 3일.

[[최유나]] 점심시간 혼자 밥 먹
음. [[한지민]] 그룹과 떨어져 앉
음. 관찰 필요.

6월 10일.

[[최유나]] 오늘도 혼자. [[한지민]]에게 "유나랑 왜 안 놀아?" 물으니 "걔가 싫대요" 답변. 개별 면담 예정.

6월 12일.

[[최유나]] 개별 면담. "지민이랑 사이 안 좋아?" 물으니 "괜찮아요" 답변. 표정 어두움. 추가 관찰.

6월 17일.

[[한지민]] 개별 면담. "유나랑 무슨 일 있어?" 물으니 "아무 일 없어요" 답변. 둘 다 부정.

6월 24일.

학부모 상담 주간. [[최유나]] 어
머니 상담. "유나가 요즘 학교 가
기 싫어해요" 말씀. 교우관계 문제
 가능성 언급. 지속 관찰 약속.

7월 5일.

[[최유나]] [[한지민]] 자리 배치
변경. 물리적 거리 확보. 유나 표
정 조금 밝아짐.

7월 15일.

1학기 종업식. [[최유나]] 어머니
께 전화. “2학기에도 계속 지켜보
겠습니다” 안내.

3개월간의 기록이 있었다. 나는 몰랐던 게
아니었다. 인지하고, 면담하고, 조치했다.

진실은 기록 속에

학폭위 조사관에게 기록을 제출했다.

“6월 3일부터 인지했고, 6월 12일과 17일
에 양측 면담, 6월 24일 학부모 상담, 7월
5일 자리 배치 변경까지 조치했습니다.”

조사관이 기록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조치하신 겁니
다.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이네요.”

나중에 알게 됐다. 최유나 어머니가 “담임이 방관했다”고 주장했지만, 내 기록과 6월 24일 상담 기록이 그 주장을 반박했다.

기억만으로는 “저는 분명히 조치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증거가 없다. 기록이 있었기에, “**6월 3일부터**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었다.

10부. “체벌했다면서요?”

악몽 같은 민원

10월 8일, 퇴근 직전. 교감 선생님이 부르셨다.

“선생님,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누구요?”

“송민재 학부모입니다. 어제 수업 중에 선생님이 민재 머리를 때렸다고요.”

송민재. 어제 수업. 머리를 때렸다?

절대 그런 적 없다. 하지만 “안 때렸습니다”라고 말해봤자 내 말뿐이다.

그날의 수업 기록

집에 와서 읍시디언을 열었다. 10월 7일 기록.

10월 7일 (월) 3교시 국어

- 시 낭독 수업. 모둠별 발표.
- [[송민재]] 발표 차례에 장난. "야, 진지하게 해" 주의.
- 민재 계속 웃음. 내가 다가가서 어깨 톡톡 치며 "민재야, 집중" 말함.
- 이후 발표 잘 마무리.

어깨를 톡톡 쳤다. 머리가 아니라 어깨.

그리고 그날 수업에는 30명의 학생이 있었다.

다음 날, 교감 선생님께 기록을 보여드렸다.

“제 기록에는 ‘어깨 톡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친 적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 날 수업에 있던 학생들에게 확인해 주세요.”

오해가 풀리는 순간

교감 선생님이 몇몇 학생에게 확인했다.

“그날 선생님이 민재 머리 쳤어?”

“아니요? 어깨 톡톡 치면서 ‘집중해’ 하셨어요.”

“머리는?”

“아니요, 절대 안 쳤어요.”

학부모에게 연락이 갔다.

“확인 결과,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체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 민재가 집에서 “선생님이 때렸어”라고 과장해서 말했고, 부모가 그대로 믿은 것이었다.

기록이 없었다면?

“안 때렸습니다” vs “때렸대요”의 진흙탕 싸움이 됐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수업 중 학생 지도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 “민재 주의” ○ “민재 어깨 톡
톡, ‘집중해’ 말함”

11부. 평가 이의제기

“왜 우리 애만 B예요?”

11월, 수행평가 성적 공개 후.

학부모 전화가 왔다.

“선생님, 왜 우리 지수만 B예요? 다른 애들은 다 A 받았다면서요?”

이지수. 발표 수행평가에서 B를 받은 학생.

“어머니, 지수가 발표 내용은 좋았는데, 평가 기준 중 ‘시간 준수’ 항목에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좋으면 됐지!”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다. 이럴 때 기억에 의존하면 “분명히 시간 초과했습니다”라고 말해도 “증거 있어요?”라는 반격을 받는다.

피드백 기록의 힘

나는 옵시디언을 열었다.

[[이지수]] 발표 수행평가 (11/5)

- 주제: 환경 보호
- 내용: A (논리적, 자료 풍부)
- 전달력: A (목소리 크기, 시선 처리 양호)
- 시간 준수: C (5분 기준, 7분 30초 소요. 2분 30초 초과)
- 종합: B
- 피드백: “지수야, 내용은 정말 좋았어. 다음엔 시간 조절만 신경 쓰면 A 받을 수 있어.”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다.

“어머니, 기록을 보니 지수는 내용 A, 전달력 A를 받았습니다. 다만 시간 준수에서 5분 기준에 7분 30초를 사용해서 C를 받았어요. 평가 기준표에 ‘2분 이상 초과 시 C’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시는군요.”

“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수에게도 발표 직후 ‘시간 조절하면 A 받을 수 있다’고 피드백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한테도 다음엔 시간 맞추라고 할게요.”

공정함을 증명하다

기록이 없었다면?

“시간 초과했어요” vs “우리 애만 깎은 거 아니에요?”의 싸움이 됐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 정확한 시간 (7분 30초) - 적용된 기준 (2분 이상 초과 시 C) - 사전 피드백 (“시간 조절하면 A”)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수행평가 피드백을 반드시 기록하기 시작했다.

12부. 인수인계의 기술

2월의 선물

2월, 종업식이 끝나고.

다음 학년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다.

“선생님, 내년에 제가 이 반 맡게 됐는데...
혹시 인수인계 자료 있으세요?”

예전의 나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음... 1번 강도현이는 좀 산만하고, 5번 김
민준이는 화장실 자주 가고, 12번 박서준이
는 월요일에 힘들어하고...”

기억에 의존한 두루뭉술한 정보.

1년을 5분에 담다

올해의 나는 달랐다.

옵시디언에서 각 학생의 노트를 열었다. 1년간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도현]] - 핵심 패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시 방어적 반응 - 배경: 가정 내 갈등 (아버지 큰 소리) - 접근법: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어?” 식으로 - 성장: 5월 이후 자기 성찰 시작, 11월 후배 배려 모습 - 주의: 체육 시간 신체 접촉 상황 모니터링

[[김민준]] - 핵심 패턴: 목요일 2교시 영어 시간 회피 (화장실) - 배경: 영어 듣기 평가 불안 - 접근법: 듣기 스크립트 미리 제공 - 성장: 5월 이후 회피 감소, 11월 듣기 75 점 달성 - 주의: 새 학년 영어 선생님께 상황 공유 필요

[[박서준]] - 핵심 패턴: 월요일 무기력 (눈 충혈, 식욕 저하) - 배경: 주말 부모 갈등, 수면 부족 - 접근법: 월요일 아침 “잘

왔어” 인사 - 성장: 4월 이후 월요일 안정화

- 주의: 학교가 안전지대. 월요일 특별 관심 필요

이 자료를 다음 담임 선생님께 전달했다.

다음 담임에게 전하는 것

다음 담임 선생님이 자료를 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자세한 인수인계는 처음 받아봐요.”

“1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3월에 선생님이 시행착오 없이 시작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다음 담임은 3월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도현이의 방어기제를 모르고 “왜 싸워?”라고 물을 것이다. 민준이의 영어 불안

을 모르고 “왜 화장실 가?”라고 물을 것이다. 서준이의 월요병을 모르고 “왜 힘들어?”라고 물을 것이다.

기록이 있었기에, 다음 담임은 **3월** 첫날부터 아이들을 이해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기록의 또 다른 가치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한 유산.

에필로그: 기록은 방패이자 유산이다

교직 7년.

나는 기록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배웠다.

첫째, 방패.

학폭위 조사에서 “방관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기록이 나를 지켜줬다. “체벌했다”는 민원을 받았을 때, 기록이 나를 지켜줬다.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항의를 받았을 때, 기록이 나를 지켜줬다.

기억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기록만이 당신을 지켜준다.

둘째, 유산.

2월에 다음 담임에게 인수인계할 때, 기록
이 아이들의 1년을 전해줬다. 다음 담임은
3월 첫날부터 아이들을 이해한 상태로 시작
할 수 있었다. 내가 쌓은 이해가 다음 사람
에게 이어졌다.

기록하지 않은 경험은 나와 함께 사라진다.
기록한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교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상황	기록해야 할 것
학생 지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했는지 (신체 접촉 여부 포함)
학부모 상담	날짜, 내용, 약속한 조치
학교폭력 인지	인지 날짜, 면담 내용, 조치 사항
수행평가	평가 기준, 점수, 피드백 내용

상황	기록해야 할 것
문제 행동	날짜, 상황, 지도 내용, 학생 반응
특이 사항	건강 문제, 가정 상황, 교우관계 변화

마지막 한 마디

"기록은 과거의 나를 지키고, 미래의 동료를 돋는다."

오늘 당신이 적은 한 줄이, 내일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되고, 내년 다른 교사에게 전해질 유산이 됩니다.

기록하지 않은 교사는 매년 처음부터 시작한다. 기록하는 교사는 매년 쌓아간다.

오늘도, 한 줄을 기록하세요.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인물, 사례, 장소, 시간 등은 모두 교육적 이해를 돋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기록이 만든 기적 3편

교사의 방패, 기록의 힘

저자: Junki

시리즈: 기억을 잇다, 교실을 읽다 - 교사를 위한 옵시디언 완전 가이드

© 2024 Junki.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의 인용은 출처를 밝히면 가능합니다.